

통계분석

2021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한혁



[요약]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 세계 경쟁국과 EU의 혁신 주도 산업 성과를 비교하고, 이를 위한 기업 R&D 투자 DB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EU R&D Scoreboard」(이하 'Scoreboard')를 발표
 - 매년 EU 지역의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조사하여 발표하며, 전 세계 투자 상위 기업도 조사
 - 2022 Scoreboard에서는 '21/'22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
- '21년도 투자상위 2,500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조 939억 유로(전년 대비 증가율 6.0%)
 -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 R&D 투자가 COVID-19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함
 - '04년 EU에서 R&D Scoreboard를 발간한 이후 처음으로 1억 유로를 넘어섬
- 미국이 40%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뒤를 이어 17.9%
 - 중국의 상위 기업 R&D 투자가 처음으로 EU의 투자 규모를 상회함
 - 한국은 3.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17.9%), 일본(10.4%) 다음에 위치
 - R&D 투자 상위 기업 1위는 알파벳(미국)이며, 상위 50위에 ICT 기업이 크게 증가
- 전체 기업 투자의 3/4 이상이 ICT 생산(22.6%), 의료 산업(21.5%), ICT 서비스(19.8%),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수단(13.9%)에 집중
 - 이러한 현상은 언급된 4개 핵심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자동차 부문은 EU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내 기업들은 자동차 부문에 40% 이상 투자
 - 자동차 산업은 ① 화석연료에서 전기로의 동력원 전환, ②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음
- 반도체는 전자 기기의 필수 구성 요소로,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아시아(한국·대만·중국)로 이동
 - 1990년에는 반도체 제조 시장의 44%를 EU가, 37%를 미국이, 19%를 일본이 점유했지만, 2020년 기준 대만이 22%, 한국이 21%, 중국이 15%를 점유하고 있음
 -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칩의 설계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 제조는 대만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EU는 칩의 설계와 반도체 제조 관련하여 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상위 2,500위 내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 2019년까지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5%를 상회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1~2%대로 둔화

목 차

 1. 개요.....	1
 2. 총괄 현황.....	2
 3. 산업 부문별 현황.....	6
 4. 한국 현황.....	8

1. 개요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 세계 경쟁국과 EU의 혁신 주도 산업 성과를 비교하고, 이를 위한 기업 R&D 투자 DB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EU R&D Scoreboard」(이하 'Scoreboard')를 발표
 - EU의 Joint Research Center는 매년 각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전 세계 기업의 R&D 투자 현황을 조사
- 「EU R&D Scoreboard」는 기본적으로 EU 지역의 R&D 투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나, 성과 비교를 위해 전 세계의 주요한 R&D 투자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
 - 매년 EU 지역의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조사하여 발표하며, 전 세계 투자 상위 기업*도 조사
 - * Scoreboard 포함 기업 수 : ('12년)1,500개 → ('13년)2,000개 → ('14년)2,500개
 - 2022 Scoreboard에서는 '21/'22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
 - * 대다수 기업의 회계연도가 '21년이지만, 일부 기업의 회계연도가 '22년 3월이기에 본고에서는 '22년 3월까지 포함하여 '21년으로 기재(원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보고서 연도로 기재 중, 예: 2022 Scoreboard)
 - '21년 2,500개 기업 중 EU 지역 내 기업은 361개, 미국 기업은 822개, 중국 기업은 678개, 일본 기업은 233개, 한국 기업은 53개 포함

〈표 1〉 2021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 및 국가별 연구개발비 분포현황

(단위 : 개,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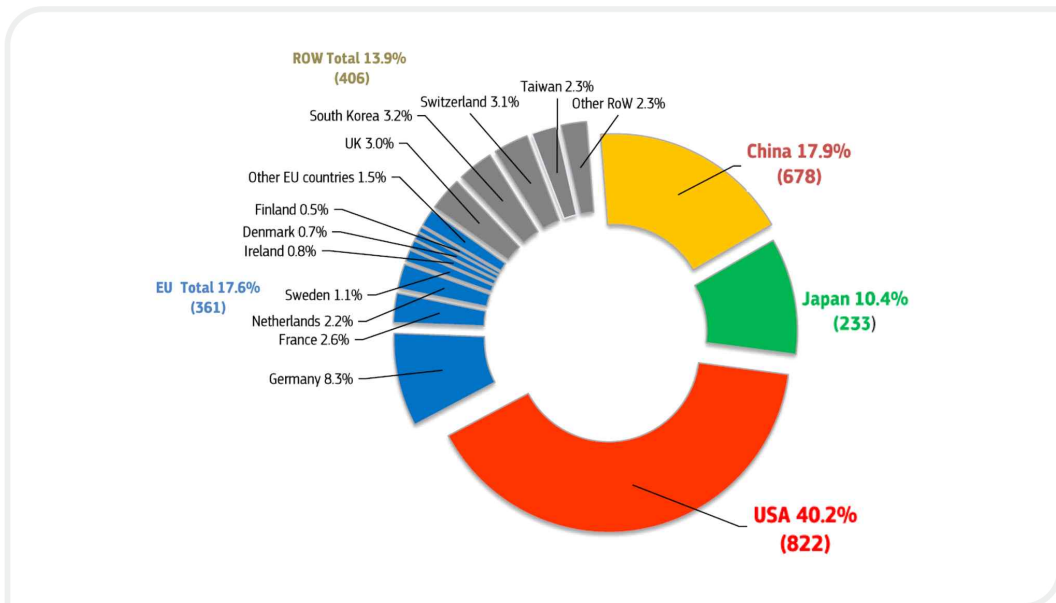
EU국	기업 수 (괄호는 2020년)	연구개발비	비 EU국	기업 수 (괄호는 2020년)	연구개발비
독일	114(124)	91.03	미국	822(779)	439.7
프랑스	57(66)	28.78	중국	678(597)	195.9
네덜란드	38(34)	24.08	일본	233(293)	113.8
스웨덴	26(34)	11.50	스위스	55(57)	34.9
아일랜드	24(27)	8.28	한국	53(60)	34.3
덴마크	25(29)	7.14	영국	95(105)	32.8
핀란드	12(15)	5.30	대만	84(86)	24.8
이탈리아	20(21)	5.21	인도	24(25)	5.6
스페인	12(14)	4.48	캐나다	28(26)	5.2
벨기에	12(13)	3.11	이스라엘	22(21)	4.1
오스트리아	13(14)	2.04	오스트레일리아	10(11)	3.1
룩셈부르크	3(4)	1.25	싱가포르	7(6)	1.6
포르투갈	2(2)	0.18	노르웨이	9(11)	1.4
헝가리	1(1)	0.17	사우디아라비아	1(1)	0.9
슬로베니아	1(1)	0.15	브라질	4(5)	0.5
몰타	1(1)	0.06	기타	14(9)	2.5
EU 합계	361(401)	192.8	비 EU 합계	2,139(2,099)	901.1

()는 2021년도 Scoreboard('20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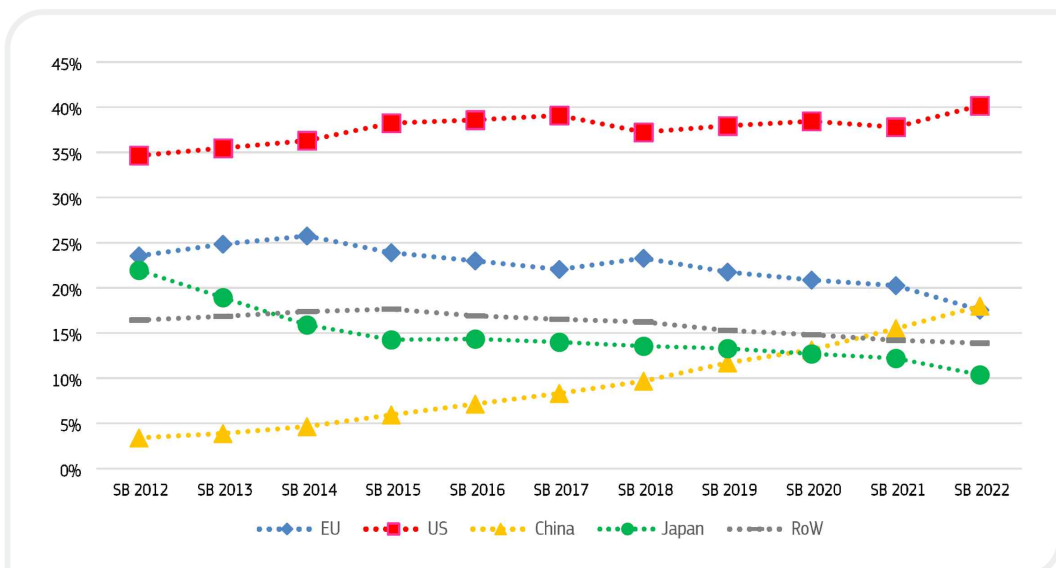
- 이번 호에서는 「2022 R&D Scoreboard」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과 한국의 기업현황을 분석
 - 세계 R&D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 현황과 2022 Scoreboard에 포함된 53개 한국 기업 현황을 분석
 - * 본문의 표, 그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2022 EU R&D Scoreboard」 보고서 내 자료임

2. 총괄 현황

- ▶ '21년도 투자 상위 2,500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조 939억 유로(전년 증가율 6.0%)
 -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 R&D 투자가 COVID-19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함
 - '04년 EU에서 R&D Scoreboard를 발간한 이후 처음으로 1억 유로를 넘어섬
- ▶ 미국이 40%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뒤를 이어 17.9%
 - 중국의 상위 기업 R&D 투자가 처음으로 EU의 투자 규모를 상회함
 - 한국은 3.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17.9%), 일본(10.4%) 다음에 위치



[그림 1] 투자 상위 2,500개 기업의 국가·지역별 연구비 투자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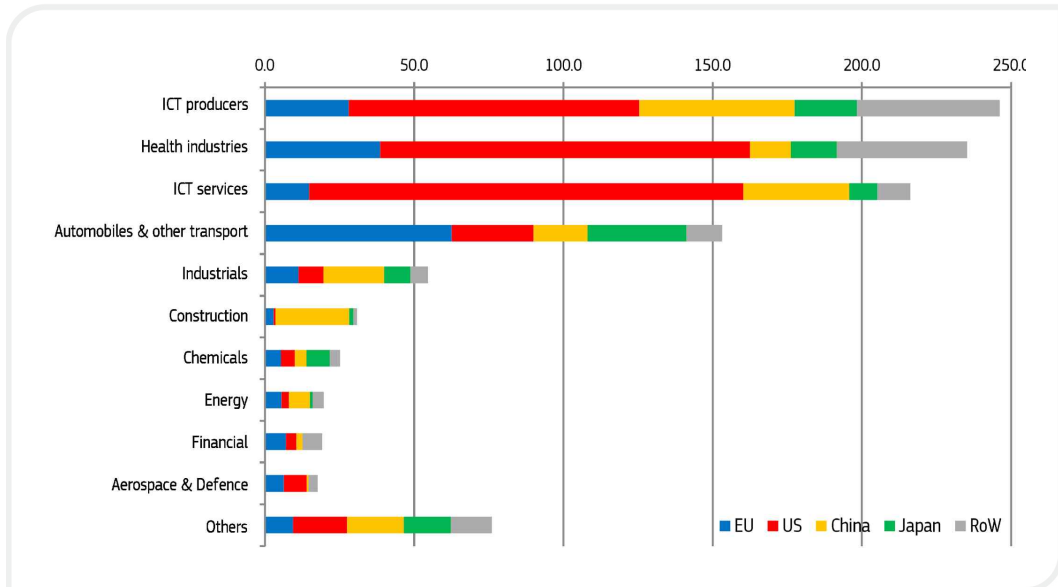


주) x축의 Scoreboard 연도는 국가별 회계연도에 따라 전년도 및 발간연도의 3월까지를 포함하나 대부분 기업이 전년도 기준이기에 전년도로 표기

[그림 2] 주요 국가/지역의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1~2021년)

● 전체 기업 투자의 3/4 이상이 ICT 생산(22.6%), 의료 산업(21.5%), ICT 서비스(19.8%),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수단(13.9%)에 집중

- 이러한 현상은 언급된 4개 핵심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미국은 ICT(생산 및 서비스), 의료 산업 분야에서 R&D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 중국은 ICT 생산뿐만 아니라 ICT 서비스 분야에서도 R&D 투자 규모가 EU를 넘어섬



[그림 3] 산업별/지역별 연구개발투자 현황(2021년)

● 2012년 대비 앞서 언급한 ICT 생산 및 서비스, 의료 산업, 자동차 및 운송 수단의 R&D 투자가 크게 증가

- 전체 증가액 대비 4개 핵심 분야에 대한 증가액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83%이며, 미국의 경우 99% 수준
- EU의 경우 자동차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집중된 반면, 미국은 ICT 서비스에 집중

[표 2] 2011년 대비 2021년 산업별 R&D 투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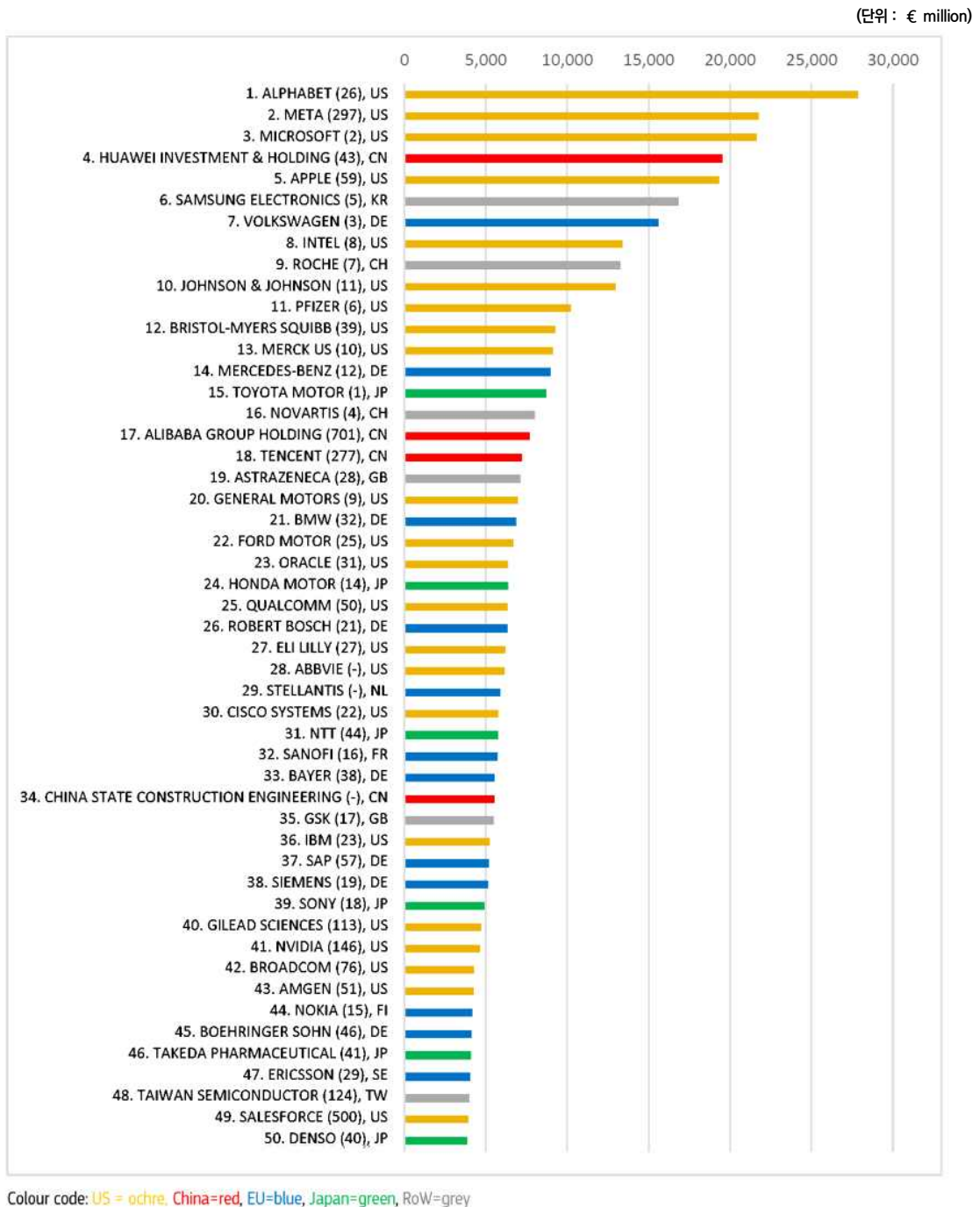
(단위 : € million)

산업 부문	EU	일본	중국	미국	기타 국가	합계
우주 및 국방	-1,260	-16	587	-26	-134	-849
자동차 및 운송 수단(핵심)	26,271	9,804	15,020	7,513	5,658	64,266
화학	990	1,388	3,690	-1,928	743	4,883
건설	1,457	162	22,020	-82	582	24,139
에너지	1,185	-143	4,101	-1,164	-962	3,018
금융	3,233	0	2,014	2,954	1,628	9,829
의료 산업(핵심)	19,294	4,962	13,385	68,287	14,896	120,824
ICT 생산(핵심)	5,441	569	45,055	40,469	19,694	111,229
ICT 서비스(핵심)	7,333	4,062	33,351	108,363	7,299	160,408
산업재	1,027	-358	17,684	-1,481	1,381	18,254
기타	1,688	1,765	18,313	4,421	5,915	32,102
합계	66,660	22,197	175,221	227,325	56,700	548,103
핵심 분야 비중	88%	87%	61%	99%	84%	83%

주) 2011년 R&D 비용은 2021년 환율로 계산됨
 자료) 「2022 EU R&D Scoreboard」 재구성

⊙ R&D 투자 상위 기업 1위는 알파벳(미국)이며, 상위 50위에 ICT 기업이 크게 증가

- 2위 기업이 메타(미국), 3위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10위 내 미국 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위 50위 내 삼성(6위)이 유일
- 전체 50위 내 ICT 기업 R&D 비중이 2012년 36%에서 2022년 52%로 크게 증가
- 상위 50개 기업 중 28%는 2012년 대비 2022년 신규 기업이며, 진입 기업 14개 중 ICT 기업이 9개



[그림 4] 2021년 R&D 투자 상위 50위 기업

● COVID-19 팬데믹 이후 상위 기업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 재무지표가 고르게 상승

- '20년에는 EU, 미국, 일본의 순매출, 영업이익, 자본적 지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21년에는 상승
- EU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126%, 미국은 73%로 크게 상승함

〈표 3〉 2021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기업 재무지표 지역별 현황

(단위 : € bn, %)

재무지표	EU	US	China	Japan	RoW	합계
기업 수(개)	361	822	678	233	406	2,500
연구개발 지출	192.8	439.7	195.9	113.8	151.8	1,093.9
전년대비 증가율	8.9	16.5	24.9	6.6	12.4	14.8
순매출	4,865.7	5,540.2	5,414.8	2,886.3	4,382.8	23,089.8
전년대비 증가율	18.0	20.8	24.0	13.0	20.3	19.8
영업이익	538.4	921.9	442.4	215.8	748.6	2,867.2
전년대비 증가율	125.7	72.7	33.6	11.1	102.3	71.9
자본적 지출	270.9	301.3	380.5	185.3	305.5	1,443.4
전년대비 증가율	5.2	15.1	11.7	3.9	15.2	10.8
고용(백만)	14.8	10.7	15.1	7.4	5.6	53.5
전년대비 증가율	0.7	5.1	5.9	0.44	1.5	3.1

자료) 「2022 EU R&D Scoreboard」, 재구성

3. 산업 부문별 현황

3.1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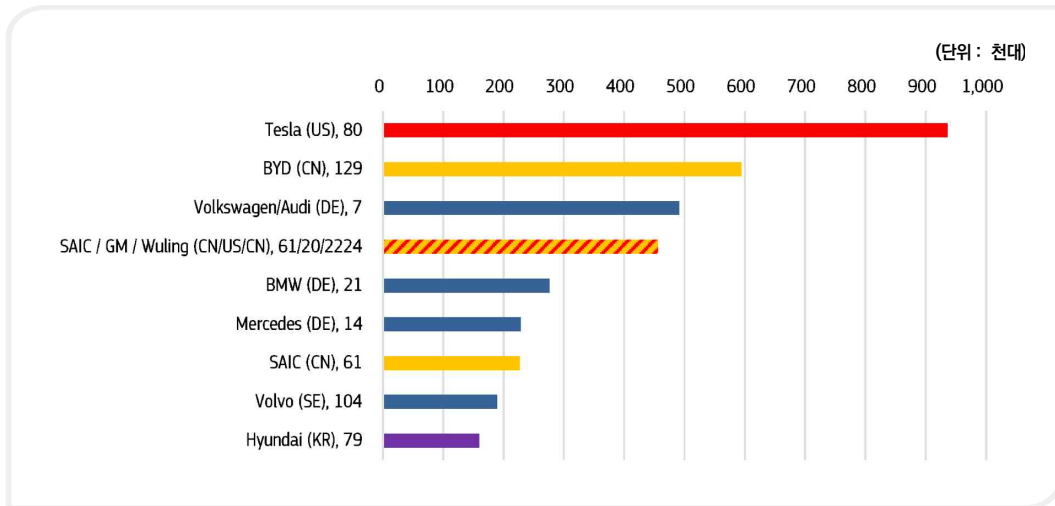
● **자동차 부문은 EU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내 기업들은 자동차 부문에 40% 이상 투자
- 자동차 산업은 ① 화석연료에서 전기로의 동력원 전환, ②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음

● **화석연료에서 전기로의 동력원 전환**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12만 대에서 1,650만 대로 급증하여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10%에 육박
- 지역별로는 중국이 3,3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전기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EU가 230만 대, 미국이 76만 대 수준
- 제조업체별로는 미국 기업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BYD, SAIC, EU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볼보* 등의 기업이 주도, 상위 10위 기업에 한국의 현대가 포함

*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음



주) 국가명 뒤의 숫자는 해당 기업의 순위

[그림 5] 2021년 전기자동차 판매 상위 순위 기업

-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중요한 원료(예: 배터리용 코발트, 리튬 및 니켈)의 공급, 충전 인프라 및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로, EU는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을 출범함

● **디지털 전환**

- ICT의 발전으로 커넥티드 차량, 자율 주행 및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Google, Amazon, Apple, Microsoft 및 Baidu와 같은 ICT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 집중 투자

3.2 반도체

● 반도체는 전자 기기의 필수 구성 요소로,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아시아(한국·대만·중국)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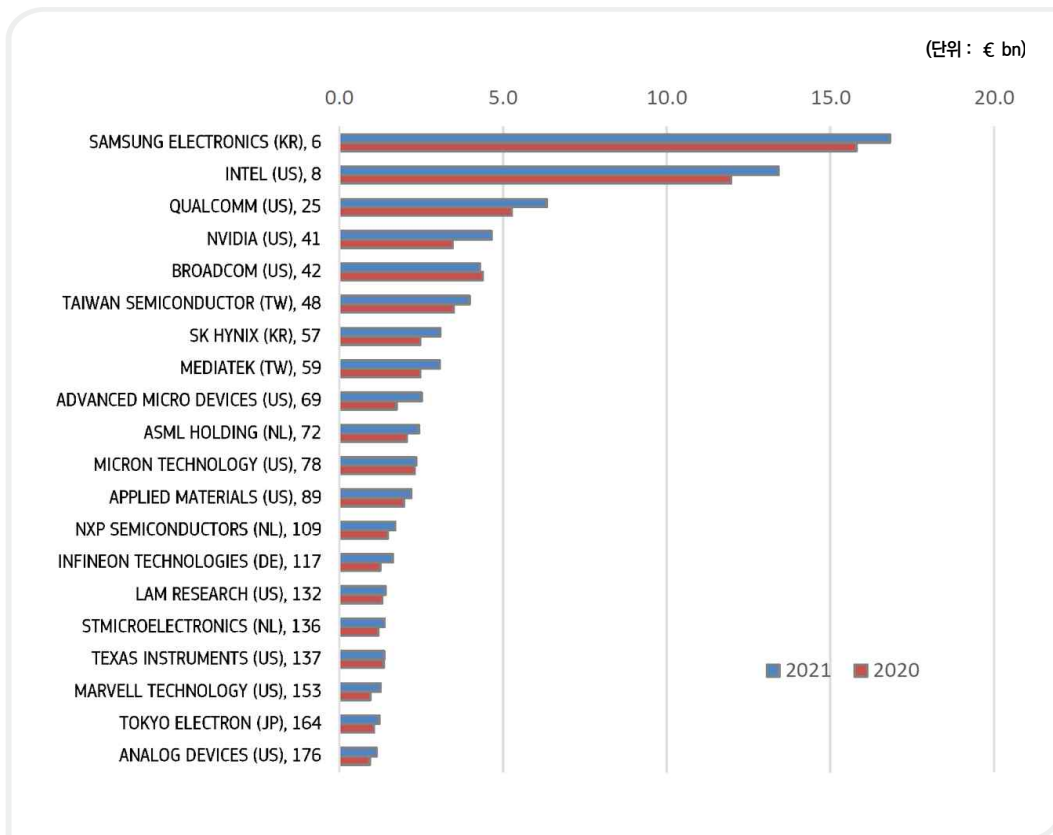
- 1990년에는 반도체 제조 시장의 44%를 EU가, 37%를 미국이, 19%를 일본이 점유했지만, 2020년 기준 대만이 22%, 한국이 21%, 중국이 15%를 점유하고 있음
-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칩의 설계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 제조는 대만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EU는 칩의 설계와 반도체 제조 관련하여 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표 4〉 2021년 국가별 반도체 R&D 및 재무지표

(단위 : € bn)

	EU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	합계
기업 수(개)	9	39	11	8	18	4	89
2021년 연구개발비	8.2	47.9	2.2	2.5	10	20.1	90.9
순매출	59.2	304	46.3	31.0	93.8	241.9	776.1
R&D 집약도	13.9	15.8	4.7	8.1	10.7	8.3	11.7
자본적 지출	4.9	37.5	7.8	1.8	30.6	47.3	129.9
이익률(%)	24.6	28.8	9.0	25.4	32.3	19.8	24.8

자료) 「2022 EU R&D Scoreboard」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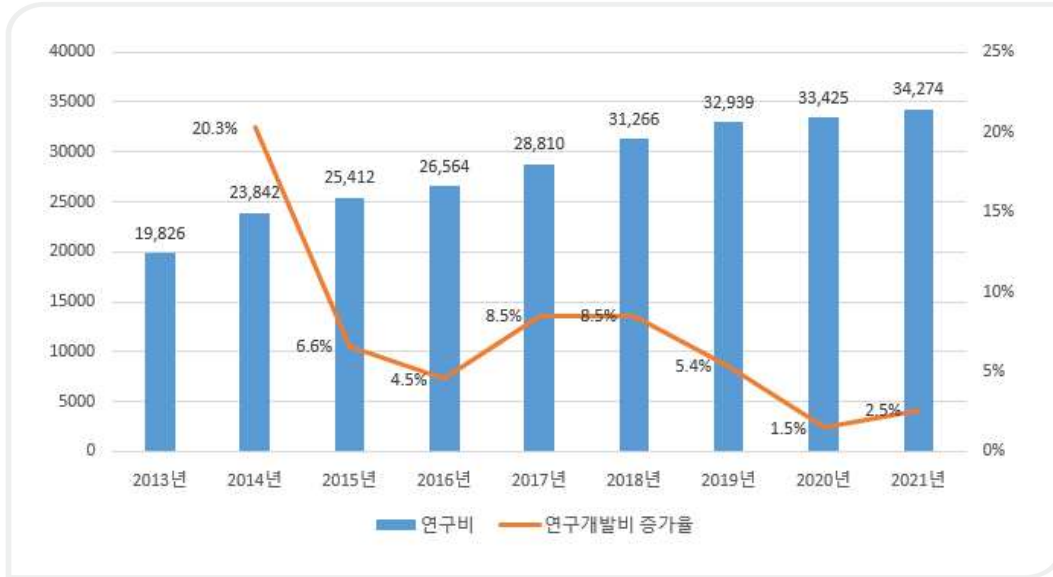
주) 국가명 뒤의 숫자는 해당 기업의 순위

〈그림 6〉 반도체 기업 R&D 투자 상위 20위 순위(2021년)

4. 한국 현황

⊙ 상위 2,500위 내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 2019년까지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5%를 상회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1~2%대로 감소



주) 2022년도의 Scoreboard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 회계연도가 2021년이기때 Scoreboard 발간연도의 전년도로 기재
 자료) 「EU R&D Scoreboard」 각 연도 자료 재구성

[그림 7] 상위 2,500위 내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2013~2021년)

⊙ 전세계 상위 2,500위 내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전자 및 전기 장비(52.9%)에 집중되어 있음

- 뒤를 이어 자동차 및 부품(11.9%),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9.7%), 레저용품(7.8%) 순

[표 5] 한국의 산업 분야별 R&D 투자 현황(2021년)

산업 분야	R&D 투자액(€million)	비중
전자 및 전기 장비(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18,132	52.9%
자동차 및 부품(Automobiles & Parts)	4,071	11.9%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Technology Hardware & Equipment)	3,333	9.7%
레저용품(Leisure Goods)*	2,677	7.8%
일반 산업(General Industrials)	1,829	5.3%
제약 및 생명공학(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926	2.7%
전기(Electricity)	547	1.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Software & Computer Services)	484	1.4%
유선 통신(Fixed Line Telecommunications)	366	1.1%
화학(Chemicals)	357	1.0%
공업금속 및 광업(Industrial Metals & Mining)	349	1.0%
우주 및 항공(Aerospace & Defence)	305	0.9%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Oil & Gas Producers)	270	0.8%
건축 및 자재(Construction & Materials)	267	0.8%
산업 공학(Industrial Engineering)	166	0.5%
여행 및 레저(Travel & Leisure)	82	0.2%
미디어(Media)	63	0.2%
개인용품(Personal Goods)	50	0.1%
총합계	34,274	100.0%

* LG전자가 레저용품으로 분류
 자료) 「2022 EU R&D Scoreboard」 재구성

부록

〈표 14〉 2021년 상위 2,500개 기업 내 한국 기업 현황

순위	기업	R&D 2021 (€ million)	전년 대비 R&D 증가율
6	삼성전자	16,813	6.5
57	SK 하이닉스	3,087	25.0
65	LG전자	2,677	1.7
79	현대자동차	2,305	0.0
196	LG화학	1,010	21.2
227	현대모비스	869	15.3
287	삼성 SDI	653	8.6
337	한국전력	547	-3.3
396	기아	448	1.2
402	삼성전기	445	17.3
450	한화	397	-13.3
513	포스코	349	0.1
554	NC소프트	319	12.4
578	두산	293	-23.6
614	SK 이노베이션	270	43.3
757	SK 텔레콤	212	13.3
8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1	3.8
949	NXC	165	20.0
1008	KT	154	12.6
1069	만도	142	14.7
1071	현대건설	141	7.0
1176	LX SEMICON	128	41.8
1187	한온시스템(주)	127	-3.2
1191	KCC	126	12.2
1200	대웅제약	124	16.6
1251	한국타이어	118	4.7
1264	GC녹십자	116	1.4
1278	중근당제약	115	7.8
1283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14	-40.7
1289	한국항공우주산업	114	-59.9
1296	한미제약	113	-29.3
1336	유한	109	-19.7
1338	원익 IPS	109	4.2
1383	한화케미칼	104	11.9
1491	엘에스일렉트릭	94	-8.0
1670	셀트리온	82	-33.7
1672	삼성물산	82	14.4
1719	일동	79	52.3
1793	코오롱	76	2.1
1913	SK	70	25.8
1940	서울반도체	69	11.6
1942	롯데케미칼	69	15.5
1953	HD현대	68	8.1
1956	일동제약	68	64.5
2038	SK케미칼	64	30.6
2052	넥센타이어	63	-7.2
2057	LG 유플러스	63	12.3
2096	동아ST	61	8.5
2241	씨젠	56	191.1
2353	LS	53	-2.7
2384	대우조선	52	-1.4
2435	DB하이텍	50	15.7
2445	아모레퍼시픽	50	25.6

|저자소개|

한혁 부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E-mail : h2hyuk@kistep.re.kr 전화 : 043-750-2602

※ 본 KISTEP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57 (23.01.06.)	MZ세대를 위한 미래 기술	지수영·안지현 (KISTEP)	미래예측
- (23.01.20.)	KISTEP Think 2023,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최대승 (KISTEP)	이슈페이퍼 (제341호)
58 (23.02.02.)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3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다은·김유신 (KISTEP)	혁신정책
59 (23.02.07.)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이민정 (KISTEP)	혁신정책
- (23.02.21.)	‘데이터 보안’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임현 (KISTEP)	이슈페이퍼 (제342호)
60 (23.03.06.)	연구자산 보호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유지은·김보경 (KISTEP)	혁신정책
61 (23.03.20.)	美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동덕 (KISTEP)	혁신정책
- (23.03.29.)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자원방안	홍미영·김주원 안지현·김종란 (KISTEP)	이슈페이퍼 (제343호)
62 (23.03.30.)	2021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한혁 (KISTEP)	통계분석
63 (23.03.30.)	2021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강유진·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 (23.04.03.)	국방연구개발 예산 체계 진단과 제언	임승혁·안광수 (KISTEP)	이슈페이퍼 (제344호)
64 (23.04.06.)	2023년 중국 양화의 주요 내용 및 과학기술외교 시사점	강진원·장지원 (KISTEP)	혁신정책
65 (23.04.10.)	2023 인공지능 반도체	채명식·이호윤 (KISTEP)	기술동향
66 (23.04.13.)	생성형 AI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고윤미·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 (23.04.17.)	STI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방안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변순천 외 (KISTEP)	이슈페이퍼 (제345호)
67 (23.04.17.)	「OECD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홍세호·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 (23.04.19.)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제언	박노언·기지훈·김현오 (KISTEP)	이슈페이퍼 (제346호)
68 (23.05.02.)	전기차 배터리 핵심망물	이승필·여준석·조유진 (KISTEP)	기술동향
- (23.05.03.)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구본진 (KISTEP)	이슈페이퍼 (제347호)
69 (23.05.04.)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OECD 원칙 및 과학기술 시사점	배용국·정미나 (KISTEP)	혁신정책
70 (23.06.08.)	OECD MSTI 2023-March의 주요 결과	정유진 (KISTEP)	통계분석
71 (23.06.09.)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한혁·안지혜 (KISTEP)	통계분석
72 (23.06.23.)	일본, 『사이언스 맵 2020』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미화·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 (23.06.27.)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언	김행미 (KISTEP)	이슈페이퍼 (제348호)
- (23.06.28.)	신입과학기술인 직무역량에 대한 직장상사·신입간 인식 비교 분석	박수빈 (KISTEP)	이슈페이퍼 (제349호)
73 (23.06.30.)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한혁 (KISTEP)	통계분석
74 (23.07.03.)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김선경·한혁 (KISTEP)	통계분석
- (23.07.05.)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 과학기술외교 대응 방향	강진원·김진하 (KISTEP), 이정태(KIST)	이슈페이퍼 (제350호)
- (23.07.06.)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자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언 (국내외 자원현황의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안지현·윤성용·함선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51호)
75 (23.07.14.)	美 2023 국방과학기술전략서(NDSTS)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유나리·최충현·임승혁· 한민규(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76 (23.07.27.)	2023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한혁 (KISTEP)	통계분석
77 (23.07.27.)	2021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분석	한혁 (KISTEP)	통계분석
78 (23.07.26.)	제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간 연계현황 및 시사점	홍정석·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79 (23.08.01.)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양은진·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80 (23.08.21.)	일본 『2023 우주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최충현·문태석·이재민· 강현규(KISTEP)	혁신정책
81 (23.08.29.)	미국의 R&D와 혁신 현황	한혁 (KISTEP)	통계분석
82 (23.08.30.)	2023년 유럽혁신지수 분석과 시사점	한용용 (KISTEP)	통계분석
83 (23.09.01.)	희토류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박정원·문윤실·이현경 (KISTEP)	기술동향
84 (23.09.20.)	화합물 전력반도체	유형정·김기봉 (KISTEP)	기술주권
85 (23.09.21.)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cience: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the Future of Research』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하선·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86 (23.09.22.)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	문성록·최충현·한민규 (KISTEP)	기술동향
87 (23.10.04.)	2023년 The Global AI Index 결과 분석	한혁 (KISTEP)	통계분석
- (23.10.1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조사 및 시사점	김인자·김가민·이원홍 (KISTEP)	이슈페이퍼 (제352호)
88 (23.10.24.)	스마트양식	이선명 (KISTEP)	기술동향
89 (23.10.25.)	지구관측위성	최충현 (KISTEP)	기술동향
90 (23.10.31.)	2023년 세계혁신지수(GII) 분석	한혁 (KISTEP)	통계분석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91 (23.11.0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김한울·한혁 (KISTEP)	통계분석
92 (23.11.0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 현황	한혁·김한울 (KISTEP)	통계분석
93 (23.11.10.)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한 국방 R&D 시사점 제언	김상준·한민규 (KISTEP)	혁신정책
94 (23.11.16.)	국내 과학기술 전공 학생 현황 분석	김가민·박수빈 (KISTEP)	통계분석
- (23.11.20.)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이길우·방형욱(KISTEP) 정영룡(전남대학교) 김성근(부산대학교) 이지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현(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이슈페이퍼 (제353호)
95 (23.11.21.)	일본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 및 시사점 - 『과학기술혁신백서 2023』을 중심으로 -	김다희·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96 (23.11.22.)	차세대 이차전지	김선교 (KISTEP)	기술주권
97 (23.11.24.)	주요국 양자정보과학기술 인력양성정책 동향 및 시사점	권재영·임승혁 (KISTEP)	혁신정책
98 (23.11.27.)	2021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한혁 (KISTEP)	통계분석